與 "정쟁 그만" vs 野 "조국 국조"

민주 "국조 요건 못갖춰"…야 '직무 정지' 대여 압박 강화
국조 대치에 한국당 "국감일 늦추자" 또 국회일정 조정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요건 불(不)충족 등 국정조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조국 사수'가 정국 경색과 민생 방치를 초래했다고 역공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기국회의 의미를 민생에 맞추면서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 대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내주 의원총회를 거쳐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해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이른바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민생 속도전을 통한 민주당의 국면 전환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반대 여론 결집을 통해 '조국 정국'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파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는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잠정 합의했으나 국감 일정을 놓고 다시 이견이 노출된 상황이다. 한국당은 국감 시작을 10월 4일이나 7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 사무실에서 박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국정지지율 43.8%

전주보다 3.4%P 하락…민주 38.2%·한국당 32.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 초반으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반년 전인 3월 2주차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3%포인트 내린 38.2%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0%포인트 오른 32.1%, 바른미래당은 0.8%포인트 오른 6.0%였다. 정의당은 1.0%포인트 내린 5.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검찰국장·기조실장도 현직검사 제외

조국 장관, 당정협의서 '검찰개혁추진단' 과제 제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 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이 맡게 될 전망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脫)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여기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도 있는 핵심 보직이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빼 왔다. 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다.

현재 직제상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 돼 있어 규정을 안 고쳐도 된다. 그러나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흘째 국회 찾은 조국 장관

평화당·대안정치연대 예방…박지원 "사법개혁 성공해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를 하러온 조 장관을 만나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다"며 "도덕적·법률적 책임 문제와 별개로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부족함과 불찰에 대해서 많은 폐를 끼친 것 같다. 사회적 형벌은 마땅히 감내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에 앞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도 찾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 조 장관에 대해 '적격'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조 장관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마음이 무겁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늘부터 '검사와의 대화'

조국 장관 의정부지검 첫 방문…행사내용·일정 공개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 의견을 듣는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일 의정부지검을 찾아 검사·직원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 장관은 인사·교육훈련을 포함해 검찰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개혁 과제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검찰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구성원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검사와 직원들 생각도 듣기 위해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과 검사·직원들의 진솔한 대화를 위해 일정과 행사 내용 모두 비공개로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하태경 징계에 내홍 격화

'노인 폄훼발언' 6개월 직무정지…오신환 "더는 같이 못가"

바른미래당의 계파 갈등이 하태경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계기로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징계로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가시화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들은 19일 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손 대표의 정치 보복이고 무효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당장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긴급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 지 몰랐다"며 "지금 상황을 정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민이 많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는 바른미래당이 손 대표와 함께하기 어렵다"며 "가만히 앉아 죽는 길로 갈 것인지, 손 대표를 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모든 당원이 함께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하 의원은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기 위해 손 대표가 벌인 자작·친위 쿠데타"라며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대혁명 일으킨 모택동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이제 비당권파에게는 탈당만이 남았다"며 압박을 가했다. 당내 당권파 의원은 "비당권파에게는 당을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지역 모 의원도 "더 이상 소모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휴양림 부근 31976㎡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5억5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상가건물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청정지역 땅 1372㎡ 건평 269㎡ 팬션·민박 등 적합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칠불사까지 3km 4억6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곡성군 목사동면 계획관리지역 등 답과 임 234044㎡ 다용도 사용가능 10억6200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접 펜션 땅 2399㎡ 시설 완벽 투자가치 양호 16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순천시 공고 제2019 – 17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순천시 가곡동 10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5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19. 9. 20.
순 천 시 장

1.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9년 9월 20일~2019년 10월 4일(14일간)
나. 열람장소 : 순천시청 건축과, 상산동 행정복지센터
2. 관계도서 : 계재생략(건축과 및 상산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3.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061-749-63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①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 계		41,332	–	41,33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1,332	감)36,702	4,630	11.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36,702	36,702	88.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기정	변경	면적(㎡)	비고
–	순천시 가곡동 10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702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건설(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사항 없음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33	가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순천시 가곡동 10번지 일원	–	증)41,332	41,33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33	순천시 가곡동 10번지 일원	41,332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위치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3,950	제9호광장 매곡123-7도	제8호광장 가곡신3-3임	일반도로		순고-73 (1978.5.15.)	
변경	대로	2	3	30~35	주간선도로	3,950	제9호광장 매곡123-7도	제8호광장 가곡신3-3임	일반도로		–	주출입구
신설	소로	1	402	10	국지도로	120	대로2-3	가곡동 11-1번지	일반도로			부출입구
폐지	중로	3	84	12	집산도로	33	대로2-3	소로2-822	일반도로		전남고-127 (2009.3.27.)	
폐지	소로	2	822	8	국지도로	650	중로3-84	중로3-84	일반도로		전남고-127 (2009.3.27.)	
폐지	소로	2	826	8	국지도로	127	소로2-822	소로2-822	일반도로		전남고-127 (2009.3.2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대로 2~3호선	대로 2~3호선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30m → 35m)	· 원활한 진 · 출입을 위해 차로 추가 설치에 따른 일부 구간 (L = 188m) 도로 확폭	
–	소로 1~402	· 노선신설 – (L= 120m, B=10m)	· 공동주택용지 진입로(부출입구) 노선신설	
중로 3~84	중로 3~84	· 노선폐지 – (L= 33m, B=12m)	·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건축부지 내 도로폐지	
소로 2~822	소로 2~822	· 노선폐지 – (L= 650m, B=8m)	·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건축부지 내 도로폐지	
소로 2~826	소로 2~826	· 노선폐지 – (L= 127m, B=8m)	·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건축부지 내 도로폐지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01	녹지	완충녹지	순천시 가곡동 20번지 일원	–	증)2,501	2,501	금회 결정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1	완충녹지	· 신설 · 면적 : 2,501㎡	· 철도와 공동주택부지 간 토지이용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결정하고자 함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	A-1	41,332	①	가곡동 10번지 일원	36,702	공동주택용지
			②	가곡동 9-1번지 일원	2,129	도로용지
			③	가곡동 20번지 일원	2,501	녹지용지(완충녹지)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0	1-①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층수)		· 18층 이하
		배치		· 주변경관의 조망을 고려하고 배경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 · 순천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배치 계획 수립
		형태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물매 1:3이상)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 · 단지 내외 옹벽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경석 및 식재 등 설치 · 담장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생울타리 담장 계획
		색채		· 건축물 색채범위는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순천시 경관계획」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공동주택 색채 범위 준용 · 주거단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중명도, 중저채도의 차분한 색 적용으로 자연의 배경이 되도록 조성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설치기준은 「순천시 경관계획」, 경관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부대 · 복리시설의 경우 건축선 적용대상에서 제외